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혜조 스님 임명 20일 임명장 수여... 비구니 스님 최초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혜조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결사본부 사무총장에 비구니 스님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에 혜조 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소임을 맡아서 분위기도 새롭고 기대도 크다"면서 "사무총장 소임이 어려운 자리인 만큼 인내를 갖고 소임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선임 사무총장 혜조스님은 "본부장 도법스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혜조 스님은 정인 스님을 은사로 1974년 표충사에서 수계(사미니계) 하였으며, 청룡암, 지산사 주지,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포교사단, 9대 단장 윤기중 선출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광명회) 9대 단장에 윤기중 포교사단 현 수석부단장이 선출됐다. 포교사단은 10월 22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5층 사무소에서 포교사단 장 및 감사선거를 갖고 단독 임후보한 윤기중 부단장을 새로운 단장으로 선출했다. 신임단장의 임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윤기중 신임단장은 2006년 포교사 품수를 받고 군포 교탑장, 서울지역부단장, 수석부단장 등을 역임하며 10년간 포교사단을 위해 일 해왔다.

윤 신임단장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운영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다시 구성되는 지역단 집행부와 원활할 소통으로 전 단장들이 가꿔온 나무에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은혜사, 자비나눔기금 2150만원 전달



영천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10월 22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215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나눔사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며 "연말 자비 나눔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돈관 스님은 "더 많은 기금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좋은 일에 써달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나누는 일에서 앞으로는 은혜사 본·말사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무행정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

법화종, 신임 총무원장에 도성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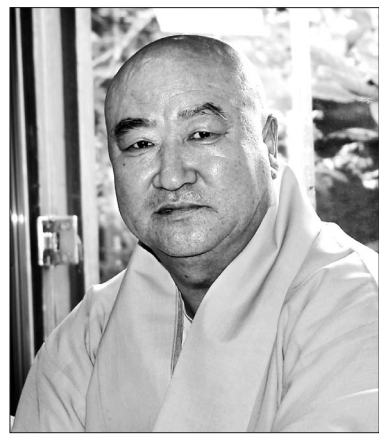
“신뢰와 화합으로 원용살림을 열어가겠으며, 8대 기초를 표방하며 법화종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제 19대 총무원장에 도성스님(통영 안정사 주지)이 선출됐다. 도성 스님은 18대 총무원장 혜륜 스님 임직에 따른 직무대행을 맡아 1년여 동안 종무행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온 것이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된 것으로 정해졌다.

10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서울 인사동에서 갖은 도성 스님은 법화종 운영의 8대 기초로 △총무원-교구-말사 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소통 △종무행정 시스템의 전산화 △수행종풍 진작 △총무원, 사찰 재정투명화 △통영 안정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추진 △효율적 분담금 책정으로 재정기반 구축 △승려교육 및 포교활성화(해외포교) △종단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어 도성 스님은 “먼저 총무원과 교구 말사 등이 공창이 아닌 개인사찰이 많다보니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해 소통을 강화하고 ‘교구원장 총무회의’를 더 한층 강화하고 아울러 교구중회도 활성화시켜 원용살림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총무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힘쓸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무행정 시스템의 원활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1946년 창종한 법화종이 내년이면 창종 70주년을 맞습니다. 한일불교협회의 창립멤버였던 법화종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분정으로 교구와 사찰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단 차원의 통일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무 전산화 3



21일 기자간담회서 종단 8대 기초발표 교구중회 활성화, 중헌종풍 재계정 등

능과 역할 분담에 힘쓸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종무행정 시스템의 원활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1946년 창종한 법화종이 내년이면 창종 70주년을 맞습니다. 한일불교협회의 창립멤버였던 법화종이 그동안 여러 차례의 분정으로 교구와 사찰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종단 차원의 통일된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무 전산화 3

개년 사업을 원년으로 내걸고 추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성 스님은 “무엇보다 법화종이 창종 당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현실에 맞는 종헌? 종법의 제정정비 필요하다. 현재 50개 사찰마다 중앙총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데, 소선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10명 이하인 선거인단을 3~40명으로 확대해 향후 제 20대 총무원장 선거는 여법하게 치르고 싶습니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도성 스님은 또한 법화종만의 전통수행법을 연구해 이를 종도들에게 유포하고 올바른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화수행입문’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성 스님은 종단 교육중심 도량인 안정사에서 분기별 승려연수교육과 함께 종도 재교육도 실시한다. 교재편찬을 위해 불교학자들 초빙하고, 이들을 각 교구 및 말사의 불교교양대학서 강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법화신앙과 관련 있는 종단과 문화 교류를 맺고 해외성지 순례도 정기적으로 갖는다. 한편 신임 총무원장 도성스님은 법화종 중앙총회 부의장과 총무원 감찰부장 등 종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취임식은 11월 초에 봉행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kimj421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진 인사 잇달아

국제 정범, 정무 도건, 홍보 법원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진이 새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국제 특보에 정범스님, 정무특보에 도건스님, 홍보특보에 법원스님을 임명했다. 국제 특보에 임명된 정범 스님은 지운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덕사에서 수계(사미니계) 하였으며, 옥천암 주지, 총무원 기획국장, 교육원 교육국장, 총무원 총무국장, 제14, 15대 총회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총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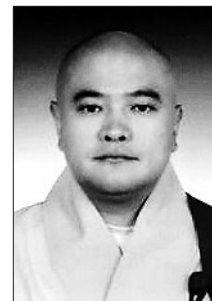
정무 특보 도건 스님은 혜성스님을 은사로 1992년 도선사에서 수계(사미니계)하였으며,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기획국장을 역임



정범 스님



도건 스님



법원 스님

했으며, 현재 16대 총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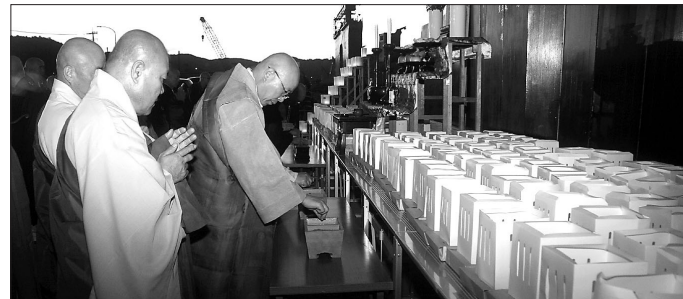
홍보 특보 법원 스님 혜강스님을 은사로 1996년 직지사서 수계(사미니계)하였으며,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대성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16대 총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日 이끼섬 한국 조난자 극락왕생 기원”

수곡사, 10월 15일 일본 현지서 위령제

경주 수곡사(주지 자업)는 10월 15일 일본 이끼섬에서 한국인 조난자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울산 동구 사암연합회, 수곡사 선다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끼섬 조난자 사고는 1945년 10월 11일 고국으로 귀국하던 중 태풍으로 인해 일본 이끼섬 아시아비행에서 조난을 당했던 일이다. 이로 인해 16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위령제는 전야 행사로 조난당한 아시아비행에서 조난자들을 위로하는 추도식과 168위 조난자 수대로 유등을 바다에 띄워보냈다. 15일 본행사인 위령제는 일본 천덕



사에서 열렸다.

수곡사 주지 자업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 조난자 위령제를 통해 그들의 넋을 기리고 한일 우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그들의 유골을 수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제 5회 수록대제



사)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은 10월 18일 거제 조선해양문화관 광장에서 제5회 세계평화와 국제안민을 위한 수록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수록대제에는 종정 청봉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 원 수오, 덕오 스님, 총무원장 혜오 스님 등 1000여 대승이 참석했다.

종정 청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자리의 모든 영가들과 참석한 대중들은 함께 지심으로 영가 천도를 기도해 제일가는 공덕을 지으라”고 말했다. 청운 경남부지사장

원공당 정무 스님 추모다례제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월 15일 원공당 정무 스님 4주기 추모 다례제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제에서는 대구 보문사 주지 도성 스님, 김해 모련사 주지 태형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생전에 법왕사에서 감로법문을 내리셨고 우리 불자들을 이끌어 주셨던 큰스님의 유덕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법당 개원법회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0월 16일 안전서 건물 5층에 부처님 점안식과 법당개원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경승실장 호법 스님(영도구불교연합회 회장),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산 스님, 오산 스님(대원사), 해암 스님(해원사), 해도 스님(한마음선원), 김홍희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김희운 영도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성철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참회법회

성철 큰스님 열반 22주기(양력 11월 1일, 음력 9월 20일)를 맞이하여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성철 대종사 추모참회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참회법회는 10월 28일 입재하여 만 4일동안 4만 8천배 참회를 백련암에서 울리며 10월 31일 사리탑전 삼천배, 11월 1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의 추모다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법회에 수희동참하시어 성철 큰스님의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여 마음에 큰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 주요일정 **10월 28일(수)** 오전 7시 : 입재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10월 31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사리탑전 삼천배
- 11월 1일(일)** 오전 7시 : 회향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11월 1일(일)** 오전 10시 : 성철 대종사 추모제(해인사 대적광전)

문의 서울 백련불교문화재단(02-2198-5101, 5372)
부산 고심정사(051-464-0068)
합천 해인사 백련암(055-933-5775, 055-932-7300)

해인사 백련암 · 성철 스님 문도회
www.sungchol.org

